

# 栗谷 李珥의 『東湖問答』과 君臣論 \*

김 경래 \*\*

- 1. 머리말
- 2. 『동호문답』의 특징과 맥락
  - 1) 『동호문답』의 구성과 '전반부'
  - 2) 新·舊 갈등과 現任 大臣 비판
- 3. 三代之治와 군신관계의 理想
  - 1) 삼대지치와 '君臣相得'
  - 2) '군신상득'과 대신위임론
- 4. '祖宗之治'와 군신관계의 재정립
  - 1) '조종지치'와 군신관계
  - 2) 삼대지치 回復을 위한 대신위임론
- 5. 맺음말

## 1. 머리말

선조 2년(1569) 9월, 홍문관 교리 이이가 讀書堂의 月課로 제출한 『동호문답』은 향후 그가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각종 개혁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호문답』에 대한 탐구는 이이 개혁론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나아가 『동호문답』에서 이이가 제시하는 개혁의 목표와 방법은 선조 대 초반에 상호 경쟁하고 갈등하였던 여러 정치세력 간에 교차점과 분기점이 어디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15 『선조대 초반의 정국과 율곡 이이의 개혁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제1장 제2절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

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동호문답』의 연구는 종종 오해되거나 여전히 모호한, 이 시기의 정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동호문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이의 개혁론 전반을 논하는 가운데 부분적·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동호문답』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었다. 1990년대 말 기초적인 해제 글이 나왔으며,<sup>1)</sup> 2000년대 들어서야 전체 내용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제출된 정도이다.<sup>2)</sup> 이 외에도 『동호문답』의 번역서에 함께 수록한 해제 글들이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sup>3)</sup> 그런 가운데 『동호문답』은 ‘수기와 치인’ 또는 ‘도덕주의와 현실주의’를 아우르는 이이 정치사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저술, 또는 신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조선적 왕도정치론’을 대표하는 글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한편, 철학계의 경우, 『동호문답』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기심성론 등 철학 분야의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한 내용이 『동호문답』에는 희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sup>4)</sup>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동호문답』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간 『동호문답』의 내용 전반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였지 특정 부분과 내용을 부각한 연구는 없었다. 그 결과 이 글에서 이이가 주장하려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호문답』과 그의 다른 저술들의 구성을 비교하면, 『동호문답』에서 이이가 특히 강조하려는 부분과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1) 최승순, 1997 「栗谷의 東湖問答考」, 『율곡사상연구』 1.

2) 안외순, 2007 「『東湖問答』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초기 정치사상: 도덕주의와 현실주의의 통일」, 『유교사상문화연구』 28.

3) 안외순 옮김, 2005 「해제: 선조에게 올리는 청년 이이의 수기치인의 정치개혁 보고서」, 『동호문답』, 책세상; 정재훈 옮김, 2014 「해제: 조선적인 왕도정치를 위한 지침서」, 『동호문답: 조선의 군주론, 왕도정치를 말하다』, 아카넷. 특히, 정재훈의 번역서에는 전체 해제글과는 별도로 각 항목별로도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만언봉사』의 경우 ‘務實’ 개념과 관련하여, 『성학집요』의 경우에는 이기심 성론, 수양론 등 이이 철학 전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과 비교된다.

글에서는 총 11개 항목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1항목-제6항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한다.<sup>5)</sup> 여기서 이이는 중국과 ‘동방’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 초점을 군신관계에 맞추고 있다. 즉, 史論 속 君臣論을 통해 그는 당대 조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질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을 모두 제시하였다.

둘째, 그 동안의 연구들은 『동호문답』이라는 텍스트 자체의 독해에만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동호문답』의 개성과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전반부의 내용 이해를 위한 역사적 맥락을 두 가지 차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동호문답』이 제출되던 당시의 정국 상황이다. 『동호문답』은 時宜性이 강한 글이기에, 이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식하며 글을 작성했는지 이해해야 그의 주장도 자연스레 해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삼대지치’, ‘군신상득’, ‘류속’, ‘권신’ 등 이이가 전반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개념의 역사적 전통이다. 이를 용어 자체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것 자체에만 주목할 경우 저자의 의도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표상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일이야 말로 이이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조 대 초반의 정국에 대해 이른바 ‘사립파’의 집권과 곧 이은 東西 분열, 이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러나 선조의 즉위와 동시에 안정적인 ‘사립정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新舊 갈등’으로 표현되는 또 하나의 갈등 축이 존재했음을 선구적 연구가 이미 지적한 바이다.<sup>6)</sup> 그럼에도 그간 신구 갈등 자체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거나와 그 의미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신구 갈등을 개혁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양측은 어디까지나 동질적 세력으로 보았다.<sup>7)</sup> 그러나 왕실 典禮를 둘

5) 아래 제1장에서 논하듯이, ‘전반부’와 ‘후반부’라는 구분과 명칭은 어디까지나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6) 일찍이 이태진은 선조 즉위 직후부터 사립파가 완전히 정국의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는 당시의 일반적 인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시기 구체제 척결을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이 존재했음을 강조하였다[이태진 편, 2003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57면]. 그러나 현재에도 종종 일부 연구들에서 이태진이 비판했던 방식의 인식과 평가가 여전함을 발견할 수 있다.

러싸고 양측의 禮論이 달랐던 사실이 결정적으로 보여주듯이,<sup>8)</sup> 신구 갈등은 당대 조선이 추구할 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지향 간의 충돌이었다. 또한 서로가 상대방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정치적 제거를 시도할 정도로, 그들의 대립은 관료 조직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고위급과 실무급 관료 간의 의견 충돌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조 대 초반의 신구 갈등은 ‘과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아니라, 척신체제 이후의 ‘미래’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질적’ 세력 간에 벌어진 경쟁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이는 선조 대 초반 내내 구신을 가장 위협적인 적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호문답』 전반부에서 그가 제출하는 史論과 君臣論은 그러한 경계의식의 반영이었다. 이이는 중국과 조선의 역사 속 군신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목표’로서 바람직한 질서의 像과 그 ‘방법’으로서 권력구조의 像을 모두 말하고자 하였다.<sup>9)</sup> ‘목표’가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자 그들과 구신 간의 차별 지점을 보여준다면, ‘방법’은 개혁세력 내부에서 이이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을 보여준다. 이 글은 『동호문답』 속 이이의 역

7)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선조 대 초반의 정국상황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적다. ‘이태진, 1977 「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1985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變遷」, 한국연구원에 재수록)’이 이 시기를 개괄적으로 다룬 선구적 연구라면, ‘김항수, 1992 「宣祖 初年の 新舊갈등과 政局動向」, 『국사관논총』 34’는 이를 보다 상세하고 구조적으로 살핀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김항수는 선조 대 초반의 갈등을 ‘사람 내부의 新舊 갈등’으로 설명하며, 그 갈등은 구체제, 구세력 청산의 정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하였다고 해석하였다.

8) 선조 대 초반 벌어진 왕실 전례 논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양측의 예론에 대해서는 지두환, 1994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고영진, 1996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참조.

9) 군신론이란 군주와 관료조직 간의 역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서, 결국 논자가 지향하는 권력구조의 像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조선의 군신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군주와 신료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한쪽의 힘의 우위를 판정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여러 군신론이 제시하는 군주와 신하 각각의 ‘역할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군신관계에 대한 전반적 추이에 대해서는 이태진, 1990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서울대 국사학과: 홍순민, 2016 「정치운영과 왕권의 추이」(『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총서』) 조선시대사 1: 국가와 세계, 푸른역사 참조.

사의식과 권력구조론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16세기에 대두한 개혁세력의 정체성과 그들의 권력구조론을 새롭게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sup>10)</sup> 『동호문답』의 후반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제도 개혁안들에 대한 검토는 별고를 기약한다.

## 2. 『동호문답』의 특징과 맥락

### 1) 『동호문답』의 구성과 '전반부'

『동호문답』은 모두 11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표면적으로 저자는 이들을 분류하거나 여기에 충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이는 분명한 문제의식 하에 항목별 주제를 정하고, 순서를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호문답』의 구조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동호문답』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형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동호문답』의 구성에 대한 이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제1항목-제6항목을 전반부로, 제7항목-제11항목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에서 이이는 조선이 추구해야 정치적 목표와

10) 그 동안 조선 중기의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론 三司에 집중되었다. '사립파'의 대두가 이를 기관의 역할 확대가 직결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宰相·大臣 등 최고위 관료에 대한 관심과 역할 강조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훈구파'의 그것으로 치부되었다. 가령, 김정신은 '훈구파'와 '사립파'의 정치구상을 '대신 對 언관'이라는 대조적 구도로 정리하였다(김정신, 2008 『조선전기 훈구·사립의 정치사상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시기 언론 활동과 언론 제도에서 양적·질적 모두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재상·대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국 송대의 사대부들이 강조한 바이며, 조선에서도 정도전을 필두로, '사립파'의 거두인 조광조도 주장한 바로서, 오랜 역사와 보편성을 지닌 사유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처럼 '사립파'와 재상·대신의 관계를 오로지 대척적으로만 이해하는 관점은 재검토를 요하며, 앞으로, '사립파'의 재상·대신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의 군신론에 대한 탐구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요건을, 후반부에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반부가 거시적·원리적 차원의 논의라면, 후반부는 구체적·실천적인 차원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반부는 ‘삼대지치’라는 질서와 ‘군신상득’이라는 권력구조를 얘기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人事, 稅制, 官學 문제와 관련한 각종 제도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1〉『동호문답』의 항목과 분류

대분류	중분류(주제)	항목명
전반부	중국의 역사	1. 君道
		2. 臣道
		3. 君臣相得之難
	'동방'의 역사	4. 東方道學不行
		5. 我朝古道不復
		6. 當今之時勢
후반부	군주의 할 일	7. 務實爲修己之要
		8. 辨奸爲用賢之要
	민생 안정과 교화를 위한 정책들	9. 安民之術
		10. 敎人之術
	을사사화의 재평가	11. 正名爲治道之本

이들 전반부와 후반부는 마치 별개의 저술처럼, 상호 이질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른 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스림[治]의 體’와 ‘다스림의 用’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2)</sup> 그렇기에 훗날의 인사들은 경우에 따라 전자에 보다 주목하기도 하고, 후자를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령, 李恒福과 李廷龜가 전자를 강조

11) 안외순은 제1-3항목에서 정치주체와 정치체제의 관계에 대한 이념형을 논의하고, 제4-6 항목에서 조선의 역대 정권과 현재의 정치현실을 접觸하였으며, 제7-11항목에서 향후 선조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며, 본 총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안외순, 앞의 책, 130-132면). 정재훈은 제1-3항목이 정치의 주체, 제4-6항목이 정치의 기준과 조선의 현실, 제7-10항목이 정치의 방법과 실천, 제11항목이 정치의 근본으로서 正名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고 파악하며, 총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정재훈, 앞의 책, 21-23면).

12) 『은봉전서』 권31, 「混定編錄續集 仁祖朝 乙亥丙子」.

하여 『동호문답』을 “王霸의 道를 분명하게 밝힌” 저술로 평가하였다면,<sup>13)</sup> 趙憲은 후자에 비중을 두어 “舊弊 철폐를 제시한” 저술임을 강조하였다.<sup>14)</sup>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양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부는 후반부의 필수 전제로서, 군주인 선조가 전반부의 원리·원칙에 대해 동의해야만 후반부의 개혁 정책들도 온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반부의 처음이자 제7항목 ‘수기’의 첫머리를 “주상께서 삼대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무엇에 먼저 힘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반부의 항목들은 ‘수기 → 용현 → 안민 → 교화’의 과정을 단계적·순차적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군주가 삼대지치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立志],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한다면[務實], 이제 중요한 일은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는 일[用賢]이 된다. 그런 다음 민생 관련 폐법을 개혁하고, 민생이 안정된 후에야 교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이이가 민의 안정[安民]과 교화[教人]를 위해서는 군주의 의지와 노력[修己],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인재의 등용[用賢]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제7·8항목과 제9·10항목의 제목이 각각 ‘-要’와 ‘-術’로 달리 끝나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군주의 ‘수기’와 ‘인재 등용’은 ‘민생 안정’과 ‘교화’와는 차원이 다른, 보다 근원적이며 우선적인 과제였다. 주지하듯이, 이이는 조정에 진출한 이래 평생 민생 안정을 위한 폐법 개혁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이이가 궁극적으로는 ‘도의 실행[行道]’을 추구하였으며, 그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제대로 된 제도 개혁도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폐단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얻어야 한다.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개혁할 수 없다”는 말처럼<sup>15)</sup> 이이는 제도 이전에 주체의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이의 생각은 이이 개혁론의 완성으로 평가되는 『성학집요』의 구성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13) 『백사집』 권4, 「栗谷先生碑銘」.

14) 『중봉집』 권5, 「辨師誣兼論學政疏」.

15)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7년 2월 “雖欲革弊 必在得人 不得其人 則弊不能革矣”

16) 『성학집요』의 爲政編에서 ‘用賢’장과 삼대지치를 논하는 ‘法先王’장은 ‘爲政之具’로, ‘安民’

장과 ‘明教’장은 ‘爲政之事’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전자는 후자보다 근본적이며 선행되어

이이가 『동호문답』 전반부를 설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는 『만언봉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이가 선조 7년 1월에 제출한 『만언봉사』는 『동호문답』과 마찬가지로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에서 원리·원칙을, 후반부에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그 원리·원칙을 중국과 조선의 역사에 대한 史論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다만 사론의 초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데, 『동호문답』이 그것을 ‘군신관계’에 두고 있다면, 『만언봉사』는 ‘법제의 변통’에 두고 있다.

〈표 2〉 『만언봉사』의 항목과 분류<sup>17)</sup>

대분류	중분류	항목 주제
전반부	知時宜	중국의 법제 변통 역사 / 조선의 법제 변통 역사
	務實功	上下無交孚之實, 臣鄰無任事之實, 經筵無成就之實, 招賢無收用之實, 遇災無應天之實, 羣策無救民之實, 人心無向善之實
후반부	修己之要	奮聖志期回三代之盛, 勉聖學克盡誠正之功, 去偏私以恢至公之量, 親賢士以資啓沃之益
	安民之要	開誠心以得羣下之情, 改貢案以除暴斂之害, 崇節儉以革奢侈之風, 變選上以救公賤之苦, 改軍政以固內外之防

그렇다면 유사한 구성과 서술 방식을 취했음에도 두 글에서 전개하는 사론의 초점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각각의 글이 제출되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하였다. 『만언봉사』는 士類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두 가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이의 문제의식 하에 작성되었다.

먼저, 선조 6년 9월 정부 차원의 향약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막상 민생 안정을 위한 폐법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이는 전반부 ‘지시의’ 항목에서 중국과 조선의 역사에서 법제 변통의 모범을 추출하고, 향약과 같은 교화 정책보다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의 변통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선조 6

야 하는 과제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爲政之具’·‘爲政之事’ 구분은 『율곡 전서』에 포함된 본에는 없고, 영조 대에 별책으로 刊印된 御製本에만 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2119-2135, 2159, 2164, 5386).

17) 『동호문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자 임의로 분류하고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년 11월 이후 미출신자의 대간 임용이 실시되었으나, 이이가 보기에 막상 그들에 대한 선조의 대우와 의견수렴은 충분치 않았다. 이에 이이는 ‘무실공’ 항목을 통해, ‘진실한 실천[實功]’만이 實效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8)</sup> 이처럼 『만연봉사』의 전반부는 ‘시의성’이 강한 주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라는 성격과 목적을 지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동호문답』의 경우에도 제출 시점에 이이는 전반부의 내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도 개혁을 담당할 주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 2) 新·舊 갈등과 現任 大臣 비판

이이가 『동호문답』을 제출한 선조 2년 9월은 선조의 新政이 막 시작한 시점이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문정왕후의 장례를 치른 명종은 얼마 뒤 본인의 생을 마감하였고, 갑작스레 즉위 한 선조는 이후 27개월 간 명종의 삼년상을 치렀다. 선조 2년 4월 大祥을 지냈고, 6월에는 祔祭를 지낸 뒤 袞服을 벗었으며, 8월 종묘에 褒廟함으로써 명종의 貿을 완전히 마쳤다.<sup>19)</sup> 일반적으로 새 군주가 즉위하였더라도 상당 기간 先王에 대한 추도 정국이 이어졌으며, 부묘까지 끝내야 비로소 일상의 정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기에 『동호문답』, 그리고 이이가 같은 달 선조에게 올린 「옥당진시폐소」는 공통적으로 ‘지금은 선왕의 상을 마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이이 개인적으로 볼 때, 선조 2년(1569) 9월은 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였다. 명종 19년(1564) 처음 조정에 진출한 신진 관료 이이는 마침 당시 조정에서 전개되던 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sup>21)</sup> 그러

18) 김경래, 2015 『선조대 초반의 정국과 율곡 이이의 개혁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1-113면.

19) 『선조실록』 권3, 2년 8월 16일(정사).

20)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辨姦爲用賢之要 “今夫主上訪落之日 方新庶政”; 『율곡전서』 권3, 「옥당진시폐소」 “方今殿下諒闇甫畢 訪落羣臣 此亦爲政之一初也”

21) 이이의 출사 약 1년 전에 척신 李樸의 세력이 전격적으로 축출되었고, 출사 7개월 뒤에는 문정왕후가 흥거하자 그의 동생이자 또 다른 척신인 윤원형이 축출되는 일이 있었다. 이

다 선조 1년 겨울 외조모의 병간호를 위해 강릉에 내려가야 했고, 이후 6개월 여 동안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선조 2년 7월 홍문관 교리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홍문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 관원보다 학술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였다. 게다가 그는 賜暇讀書에 선발되어 더욱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여유를 가졌다. 그렇기에 『동호문답』에 조정에 진출한 이래 가졌던 시국 인식과 개혁구상을 담을 수 있었으며,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다.

선조의 즉위에는 명종비 인순왕후와 그녀의 친정인 청송 심씨 가문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즉위 이후 선조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그들에 의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선조는 결코 청송 심씨와 협력하거나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기를 원치 않았다. 이는 선조 2년 이래 왕실 전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 관료 간에 누차 의견 충돌이 벌어졌을 때, 구신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신진은 명종대 말 척신정치를 비판하여 결국 그것의 청산에 성공한 개혁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다.<sup>22)</sup>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심의겸을 필두로 한 청송 심씨 가문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신진에 대한 선조의 경계는 곧 외척 청송 심씨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였다.<sup>23)</sup>

신구 간의 갈등은 선조 2년 2월에 처음으로 불거졌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文昭殿에서 시행할 典禮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먼저 명종의 부묘를 앞두고 문소전의 건물 상황을 점검하던 상황에서, 편중추부사 이황과 대간들은 ‘古禮’에 따라 文昭殿 위패의 방향과 소목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4)</sup> 당시 신

이는 보우, 윤원형, 심통원 등 척신정권 핵심 인물들의 처벌 요구에 동참하고, 자신이 속한 관서의 이름으로 각종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22) 이 글에서 지칭하는 선조대 초반의 개혁세력이란 명종대 말 집권 척신세력에 의해, ‘조정의 和平을 깨는 부박한 무리’, ‘小學이 일어난다’, ‘小己卯’, ‘이황과 조식을 뿌리로 한다’는 지목을 받은 세력을 가리킨다. 이들이 공고한 단일 집단은 아니었지만 현실 인식과 미래 지향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구신인 대신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래, 앞의 논문, 19-24면 참조.

23) 이러한 선조의 생각은 선조 8년 선·후배 개혁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래, 지속적으로 심의겸을 배척하여, 결국 그를 정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진의 宗主로 추앙받던 이황의 견해는 곧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sup>25)</sup> 그러나 이준경을 비롯한 대신들은 문소전에 ‘古禮’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미 시행한 지 140년이 넘은 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결국 이 논란은 선조가 대신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sup>26)</sup>

당시 강릉에 내려가 있던 이이는 문소전 전례 논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경연일기』에서 이이는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하면서, 이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표하였다.

人君이 先祖를 받드는 일은 마땅히 종묘를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이니, 原廟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전을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聖學이 고명하고 禮로써 망자를 모시는 분이 아니면 혁파할 수 없다. 이문순(이황)이 스스로 원묘를 폐할 수 없음을 해아려 원묘에서 고례를 행하려 했으니, 이 역시 변통에 처하여 바름[正]을 얻은 것이다. 대신이 정해진 견해가 없으면서, 단지 구차하게 流俗을 따르고자 하여 儒者의 의논을 막았을 뿐이다. 주상이 이미 古道를 좋아하지 않고 대신 또한 식견과 도량이 없으니 賢者가 조정에 설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sup>27)</sup>

이이는 문소전 전례 논란을 ‘고례를 행하려는 이황’對‘류속을 따르는 대신’의 구도로 이해하였다.<sup>28)</sup> 그가 보기에도 마땅히 고례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

24) 이황의 주장은 ‘古禮’에 따라 태조의 위패는 현 남향에서 동향으로 바꾸고, 昭穆은 東西에서 南北의 위치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25)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6월 1일(계유).

26) 3월에는 명종의 위패를 문소전에 부묘할 때 延恩殿에 있는 인종의 위패도 옮겨 함께 모실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당시 인종의 위패는 그가 1년도 왕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소전이 아닌 延恩殿에 모신 상태였다. 삼사를 중심으로 한 신진들은 인종의 위패도 문소전에 부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대신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 사안은 앞서 와 달리 신진의 주장대로 인종의 위패를 문소전에 부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선조대 초반의 문소전 전례 논쟁에 대해서는 김정신, 2004 「宣祖代 文昭殿 論爭과 朋黨」『한국사상사학』 22 참조.

27)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1월 “謹按 人君之奉先 當崇重於宗廟 而原廟非所當設也 我國文昭殿之設已久 非聖學高明以禮事亡 則不能革罷矣 李文純自度不能廢原廟 故欲就原廟中行古禮 是亦處變而得正也 大臣非有定見 只欲苟循流俗 以沮儒者之議而已 主上既不好古 而大臣又無識量 宜乎賢者之不能立朝也”

신들이 ‘류속’과 같은 행태를 보이며 이를 반대하였고, 이는 국왕인 선조도 마찬 가지였다. 현임 대신들에 대한 이이의 비판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을 ‘류속’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류속이라는 표현은君子를 자처하는 세력이 차별화를 위해 자주 사용하였다. 자신들은時俗·世俗과 다르며, 비판의 대상을 ‘류속’과 같은 존재로 규정하였다. 가령 중국 송대 사들은 한·당대의 사를 ‘世儒’라 비판하였고,<sup>29)</sup> 도학파 인사들도 자신들야말로 ‘류속’과 다른 ‘진정한 유자[眞儒]’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볼 때, 문소전 논쟁 과정에서 이이는 현임 대신들을 자신과는 다른 정체성의 집단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월과 6월에는 대사헌 金鎧가 경연 자리에서 조광조가 ‘자신에게 붙는 자는 진출시키고, 다른 자는 배척하였다’며 비난하고, ‘기묘사람이 한 일은 大綱만 옳다’고 하여 일대 파란이 일었다. 김개는 이이가 “道學之士를 좋아하지 않고, 流俗과 다른 자를 보면 미워”한다며, 홍담·홍섬·송순과 함께 구신의 핵심으로 파악한 인물이었다.<sup>30)</sup> 이때 김개가 비난한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조광조였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개혁세력을 억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김개 스스로가 ‘대신을 공격하는 신진들을 근신케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밝혔으며, 신진들도 자신들이 ‘시비를 분명히 가리려 하자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sup>31)</sup> 이 사건을 통해, 왕실 전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더하여, 신진과 구신의 정체성을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조광조에 대한 태도임이 드러났다. 신진이 전적으로 조광조를 추종하고 계승하고자 했다면, 구신들은 그를 비판적·부분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이었다.

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기대승이 예안의 이황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sup>32)</sup> 기대승은 김개가 장차 “사람에게 화를 일으키려 한다”면서, 조

28) 왕실 전례 문제는 명종 대 말-선조 대 초반 개혁세력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 문소전 논란 이전에도 명종 22년 문정왕후 상례 그리고 선조 즉위년 명종 상례 때에卒哭 후 服制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29) 호이트 틸만(김병환 옮김), 2010 『주희의 사유세계: 주자학의 패권』, 교육과학사, 14면 · 20면.

30)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6월.

31)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6월 9일(신사);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8월 16일(정사).

정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여, 조만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표출하였다. 특히 그는 ‘벗들 중에도 이해관계에 이끌려 자신과 심의겸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하였다.<sup>33)</sup> 이로 보건대, 당시 조정에서 개혁세력은 수적 측면에서나 권력의 정도에서 결코 절대 우위가 아니었다. 결국 기대승은 7월에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sup>34)</sup> 이런 상황에서 정철은 “먼저 일어나야 한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공격하는 게 낫다”며, 신진이 구신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sup>35)</sup> 이처럼 선조 2년에 구신에 대한 적대의식과 위기감은 이이만이 가졌던 독특한 인식이 아니라, 당시 개혁세력 사이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

다만, ‘류속’ 구신·대신에 대한 이이의 경계의식과 위기감은 그들 중에서도 유달리 강했던 것 같다. 이이가 파악하기에 ‘류속’ 인사들의 특징은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의 유지를 선호하고, 이상보다는 현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후반부 제9항목에서 安民을 위한 弊法 개혁에 주저하는 인물로, 제10항목에서는 삼대의 인사 등용법을 비현실적이라 치부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반면 군자는 그들과 달리 이상을 목표로 현실을 바꾸려는 존재들로, 소수였기에 다수인 류속 인사들의 비난을 받기 쉬웠다. 문제는 ‘류속’ 인사들이 단지 개혁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자를 탄압하는 ‘소인’이 되기 쉽다는 점에 있었다.<sup>36)</sup> 이이는 같은 달의 「옥당진시폐소」에서 ‘류속’ 구신·대신에 대한 위기의식의 강도를 높여 더욱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지닌 위기의식의 근거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마음으로는 古道를 사모하고, 몸으로는 儒者의 행동을 신척하고, 입으로는 法言을 말하고, 公論을 부지하는 자를 士林이라 한다.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서 사업을 펼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사람이 조정에 없고 그들의 말을 空言이라 여기면 나라가 어

32) 이황은 문소전 논란을 겪은 후, 선조 2년 3월에 예안으로 내려간 상태였다.

33) 『고봉집』『양선생왕복서』 권3, 12면.

34) 『선조실록』 권4, 선조 3년 7월 9일(을해).

35)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윤6월.

36)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辨奸爲用賢之要.

지려워진다. 예부터 군자와 소인의 진퇴에 다스림과 어지러움이 달려 있는데 (중략) 우리 조정의 일로 말하자면, 기묘년의 諸賢은 責難陳善하여 唐虞를 이루고자 공론을 지녔는데, 남곤·심정의 무리가 틈을 엿보아 덫을 놓아 일망타진하였다. 을사년의 제현은 聖君을 만나 세도를 만회하고자 하여 공론을 견지하였는데, 윤원형·정순봉·이기의 무리가 세력을 이용해 罹를 꾸미어 한 때의 善良들을 모두 반역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중략) 지금 비록 權姦이 모두 사라지고 공론이 조금 행해지고 있으나, 士氣가 여전히 꺾이어 스스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이전의 실패가 앞에 있어 餘毒이 두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간사한 자가 감히 편벽되고 거짓된 설을 경연 자리에서 남발하여 장차 사립에 화를 끼치려 하였으나, 다행히 성상께서 밝게 살핀 덕분에 간사한 계책을 이루지 못하였다.<sup>37)</sup>

소의 세 번째 조항 “기미를 살펴 사립을 보호할 것[審幾微以護士林者]”에 등장하는 위의 구절은 보통 사립파에 대한 일반적으로 정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김개의 발언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이는 ‘마음으로 고도를 사모하고-공론을 부지하는’ 사람이 조정에서 자신들의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항상적으로 마주하는 위험성에 대해 말한다. ‘얼마 전 간사한 자가 경연에서 그랬던 것처럼’, “군자”인 사립은 “소인”의 공격에 의해 언제든지 화를 입을 수 있었다. 이는 ‘공론을 부지하던’ 기묘사립이 남곤·심정에 의해 화를 입고, 을사년 ‘賢人’들이 윤원형 등에 화를 당한 경우처럼, 가까운 역사적 경험에 증명하였다. 여기서 군자인 ‘사립’은 곧 신진을 비롯한 개혁세력을 의미하고, 소인인 ‘간사한 자’는 김개를 지칭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이가 보건대, ‘류속’ 대신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 자들로,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언제든 개혁세력에게 정치적 화를 입힐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이의 경계의식과 위기감은 이후 선조대 초반 내내 계속되었다.<sup>38)</sup>

37) 『율곡전서』 권3, 「옥당진시폐소」 “夫心慕古道 身飭儒行 口談法言 以持公論者 謂之士林  
士林在朝廷 施之事業則國治 士林不在朝廷 付之空言則國亂 自古君子小人之進退 (중략)  
且以我朝之事言之 己卯諸賢 責難陳善 期致唐虞 方持公論 而南衰沈貞之徒 伺隙設機 一網  
打盡焉 乙巳諸賢 遭遇聖君 欲回世道 方持公論 而尹元衡鄭順朋李芑之徒 乘勢構禍 悉舉一  
時之良善 投之叛逆之深坑焉 (중략) 今茲羣姦已盡 公論稍行 而土氣尙挫 不能自振者 良由  
覆轍在前 餘毒可畏故也 頃者 有一愴邪 敢以談遁之說 濫發經席之上 將禍士林 而幸賴天鑑  
洞照 姦謀不售”

### 3. 三代之治와 군신관계의 理想

#### 1) 삼대지치와 '君臣相得'

『동호문답』은 아래와 같은 손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스려짐[治]과 어지러움[亂]이 없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면 어지러운가?”<sup>38)</sup>

이이는 『동호문답』 전체의 처음이자, 제1항목인 ‘군도’의 시작을, 治亂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즉, 군도와 치란을 곧바로 연결함으로써, 군주의 역할이 질서의 마련에 결정적 요인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이가 말하는 바람직한 군주의 역할이란 무엇일까? 이는 ‘군도’ 항목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신도’와 ‘군신상득’의 항목을 모두 살펴 후에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상 이들 세 항목이 모두 군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이는 제1항목에서 唐虞三代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 속 군주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다스림을 이룬 군주의 유형으로는 군주 본인의 자질이 뛰어난 경우와 부족하더라도 賢人에게 맡긴 경우, 이 두 가지가 제시된다. 반대로, 자질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스스로 자만하거나, 간사한 자의 말만을 듣는 것은 군주가 절대 취하지 않아야 할 태도가 된다. 나아가 그는 다스림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다스림의 방법과 내용도 문제 삼는다. 즉, ‘군주의 자질이 뛰어나 호걸을 부렸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지만, ‘오제삼왕이 백성들의 부유와 교화를 모두 이룩한 반면, 진문공과 당태종은 단지 부유하게만’ 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그리고 이이는 오직 삼대의 질서만을 조선의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8) 이에 대해서는 김경래, 앞의 논문, 140-145면 · 207-219면 참조.

39)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君道 “無古今無治亂 若何而治 若何而亂”

〈표 3〉 君道 : 治亂의 유형과 역대 중국 군주들에 대한 이이의 평가

治亂	분류	군주의 자질과 태도	설례
治	王道	才智出類 駕馭豪傑	五帝·三王
		才雖不足 能任賢者	商 太甲(伊尹)·周 成王(周公)
	霸道	才智出類 駕馭豪傑	晉 文公·晉 悼公·漢 高祖·漢 文帝·唐 太宗·宋 太祖
		才雖不足 能任賢者	齊 桓公(管仲)·漢 昭烈(諸葛亮)
亂	暴君	自恃聰明者	夏 桀·商 紂·周 厥·隋 煙
		偏信姦諛者	秦 二世(趙高)·漢 桓帝(宦寺)
	昏君	自恃聰明者	唐 德宗
		偏信姦諛者	宋 神宗(王安石)
	庸君	碌碌之庸君	周 桀王·漢 元帝·唐 僖宗·宋 寧宗

한·당대의 정치를 부정하고, 삼대의 질서만을 긍정하는 이이의 역사의식은 중국 송대 사대부들의 그것과 같았다. 王安石은 “요순이야말로 마땅히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며, 한 문제나 당 태종 등을 경쟁자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程顥는 “한·당대 군주의 태도는 계승할 가치가 없다”거나 “한·당을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적다”고 단언하였다.<sup>40)</sup> 이른바 王霸 논쟁 과정에서 주희가 보여준 역사의식은 그 연장선에 있었다. 주희가 ‘한·당대의 정치는 人欲에 의한 정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陳亮은 ‘한당대의 정치를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 역시 참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1)</sup>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당우·삼대가 정치의 理想이자 모범으로 기능하였지만,<sup>42)</sup> 국초에는 한·당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강하였다. 이러한

40) 『宋史』「왕안석전」; 『하남정시문집』 권1, 「논왕폐차자」[고지마 쓰요시(신형승 옮김), 2004 『송학의 형성과 전개』, 논형, 190-191면에서 재인용].

41) 王폐 논쟁에 대해서는, 손영식, 1999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출판부; 이용주 2003 『주희의 문화 이데올로기』, 이학사; 조남호, 2004 『주희: 중국철학의 중심』, 태학사; Hoyt Cleverland Tillman, 1982 *Utilitarian Confucianism*,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42) 단적으로 정도전이 ‘贈任鎮撫詩序’에서 보여준 중국 역사에 대한 평가는 송대 사대부들의 전형적 역사의식과 같았다(『삼봉집』 권3, 贈任鎮撫詩序). 이에 대해서는 한영우, 1999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77-178면 참조.

경향은 이미 고려 말의 李檉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는 고려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대의 군주는 물론 당 태종도 반드시 군주의 理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조선 초 權近도 역대 군주들의 평가에서 삼대 이후 한 고조를 최고로 꼽고, 그와 소하·조참과의 관계를 현실적 모범으로 들었다.<sup>44)</sup> 세조 대 梁誠之의 「논군도십이사」는 그러한 역사의식을 가장 직접적이며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세조에게 養民을 위해서는 당우삼대 와 함께 한·당은 물론 송·금의 정치도 함께 모범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45)</sup> 이러한 역사의식은 삼대지치의 도덕질서는 어디까지나 理想일 뿐이며, 현실의 모범은 한·당대의 풍요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의 반영이었다.

그런데 중종 대 조광조와 기묘사림을 기점으로 조선에서 삼대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다. “삼대지치를 지금 회복할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는가”라는 그의 발언이 상징하듯이,<sup>46)</sup> 이제 삼대지치는 ‘高遠하기만 한 대상이 아니라, 조금씩 노력하여 도달 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가 되었다.<sup>47)</sup> 그리고 ‘小己卯’라 불린 명종 대 말-선조 대 초반 개혁세력의 삼대지치 회복 주장은 이를 계승한 것이었다.<sup>48)</sup> 이이는 『동호문답』에서 삼대지치의 회복을 강조하지만, 막상 삼대지치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는다.<sup>49)</sup> 끝부분인 제10항목 ‘教人之術’에서 그 편린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그가 삼대지치 회복은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민에게는 생업을

43) 도현철, 2011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혜안, 234-238면.

44) 강문식, 2008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태학사, 277-279면.

45) 『세조실록』 권1, 1년 7월 5일(무인).

46) 『정암집』 권3, 「參贊官時啓一」.

47) 『정암집』 권3, 「侍讀官時啓六」.

48)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6월 1일(계유); 권6, 선조 5년 10월 1일(갑인).

49) 이들이 상정한 삼대지치의 모습은 ‘여향의 下賤輩도 喪禮를 잘 거행하고, 젊은 과부는 재 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윤6월 7 일(기유)]. 필자는 조광조와 선조 대 초반 개혁세력이 상정하는 삼대지치의 모습을 民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도덕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全一的 도덕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김경래, 앞의 논문, 176-186면). 조선에서 ‘삼대지치’라는 表象이 지닌 表意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은 시대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안정시키는 일이 우선이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명 『동호문답』에서 이 이는 ‘삼대지치를 오늘날 회복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삼대지치에 대한 태도를 自他 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sup>50)</sup>

제2항목 ‘신도’는 중국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평을 통해, 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하의 像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군주와 함께 왕도정치를 이룰 수 있는 신하의 像으로, ‘본인이 도덕을 지니고 이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大臣’이 제시된다.<sup>51)</sup>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들 중에 ‘대신’이 없다면 재야에서 찾아야 한다. 재야에도 ‘대신’과 같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자들인 ‘天民’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스스로는 조정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시대를 구제할 뜻을 품고 있기에, 언제든 자신을 부르면 조정에 나오는 자들이다. 따라서 군주의 적극적인 招致가 관건이 되며, ‘천민’이 ‘대신’이 될 때, 즉 그들이 조정에서 정치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왕도정치가 행해질 수 있다.

〈표 4〉 臣道 : 進退 유형과 역대 중국 신하들에 대한 이이의 평가

상태	분류	신하의 자질과 태도	실례
進 /兼善	大臣	道德在躬 推己及人 欲使吾君爲堯舜之君 吾民爲堯舜之民 事君行己 一以正道者	臯陶·夔·稷·契·仲虺·周公·召公
	忠臣	惓惓憂國 不顧其身 苟可以尊主庇民 不擇夷險 盡誠行之 雖於正道 少有出入 而終始以安社稷 爲心者	寧武子·諸葛亮·狄仁傑·司馬光
	幹臣	居其位思守其職 受其任思效其能 器雖不足於經國 才可有爲於一官者	趙過·劉晏·趙充國
退 /自守	天民	懷不世之寶 蘊濟時之具 靜默樂道 韶橫待賈者	伊尹·傅說·太公·周濂溪·程明道·程伊川·邵康節·張橫渠·朱熹
	學者	自度學不足而求進其學 自知材不優而求達其材 藏修待時 不輕自售者	漆雕開
	隱者	高潔清介 不屑天下之事 卓然長往 與世相忘者	晨門·接軒·沮溺

50)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當今之時勢.

51)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臣道 “道德在躬 推己及人 欲使吾君爲堯舜之君 吾民爲堯舜之民 事君行己 一以正道者 大臣也”

여기서 이이가 사용한 ‘대신’이란 용어는 『논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논어』에서 ‘대신’은 “道로써 군주를 섬기다, 안 되면 그만 두는” 자이다.<sup>52)</sup> 『동호문답』의 ‘대신’은 ‘조정에 나아가 도를 행한다’는 면에서는 『논어』의 ‘대신’과 같았지만, 물러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그와 달랐다. 다음으로, ‘천민’이란 용어는 『맹자』에서 가져온 것이다. 『맹자』에서 ‘천민’은 곧 伊尹이었다. 그는 밭을 갈며 요순의 도를 즐기다가, 탕 임금의 요청에 따라 조정으로 나와 도를 행하였다.<sup>53)</sup> 『동호문답』의 ‘천민’ 역시 『맹자』의 ‘천민’과 마찬가지로 초야에서 ‘욕심 없이[囂囂] 도를 즐기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애초부터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기다리며[韜犧待賈者]’ 언제든 나갈 의향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 번의 끈질긴 요청 끝에 마음을 바꾼 이윤과는 달랐다.

‘대신’과 ‘천민’의 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이의 出處觀은 송대의 도학자들, 그리고 이를 계승한 이황의 그것과는 달랐다.<sup>54)</sup> 주희는 ‘대신’에 대한 주석에서 ‘군주와 맞지 않으면 떠나는’ 행위, ‘군주의 욕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하 본인의 의지를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55)</sup> 그들은 士라면 道와 義를 위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조정에서의 활동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였다.<sup>56)</sup> 이이 역시 주희·이황과 마찬가지로 ‘도학’을 통한 도덕적 자질의 구비를 사의 일차적 덕목으로 중시하였다. 하지만, 이이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진출하여 도를 행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그들과 달랐다.

제3항목 ‘君臣相得’은 앞서 제1항목과 제2항목에서 얘기했던 바를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항목이다. 여기서 이이는 중국의 역대 군주들에 대해, 군신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상세한 평가를 내린다(〈표 5〉). 나아가 미래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는데, 앞으로 요순과 같은 聖人 군주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그보다 신하 측에서, ‘道學之士’인 ‘眞儒’에게서 그 가능성을

52) 『논어』先進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53) 『맹자』盡心 “有天民者 達可行於天下而後 行之者也”

54) 송대 도학파의 출처관은 『근사록』 권7의 ‘出處’ 항목을 보는 것이 유용하다.

55) 『논어집주』先進 “以道事君者 不從君之欲 不可則止者 必行己之志”

56) 주희와 이황의 출처관에 대해서는 김훈식, 2003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 『역사와 현실』 50 참조.

찾는다. 군주가 할 일은 ‘진유’를 ‘높은 자리’에 등용하는 것으로, 그 모범으로 제 갈공명을 등용한 漢昭烈을 듣는다. 앞서 제1항목에서 이이는 ‘군주가 뛰어난 자질로 직접 신하를 부리거나’, ‘자질이 부족하면 현자에게 위임할 것’, 이 두 가지를 군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3항목에서는 ‘현자에게 위임할 것’만이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이이가 추구하는 군도는 ‘군신상득’으로 귀결된 것으로, 그것은 ‘현자에게 위임하는’ 군주와 ‘적극적으로 조정에 진출하여 도를 행하려는’ 신하가 만날 때 가능한 상황이었다.

〈표 5〉 君臣相得 : 三代 이후 역대 중국의 군주, 군신 관계에 대한 이이의 평가

군주	군주에 대한 평	군신관계에 대한 평
한 고조	彼高祖素慢無禮 其所駕馭者 皆志乎功名富貴者耳	眞儒孰肯甘受踞洗之辱 區區廁身於信布之列
한 문제	自棄之君也 (중략) 三代之後 天下之賢君 固莫如文帝者矣 但其志趣卑下 以爲古道必不可復 安於恬靜 僅取養民 古道之不復 自文帝始	雖遇眞儒 必不能用也
한 무제	武帝內多欲而外施仁義 其所謂仁義者 皆崇尚虛文 以爲美觀耳 非誠心信道者也	有董仲舒汲黯 尚不能用 惡可用眞儒乎
후한 광무제	光武規模不及高祖	務自用而不任三公 其不能仰威於眞儒 可知矣
후한 명제	明帝察察 無人君之度	臨雍拜老 特示文具耳 豈知所謂眞儒耶
당 태종	太宗劫父而發兵 殺兄而奪位 淫于母弟之妻 行若狗彘矣	宗雖欲用眞儒 真儒孰肯爲太宗之臣乎
송 태조	太祖以周世宗寵遇之臣 迫於陳橋之變 卒爲? 逆之臣	眞儒必望而去矣
부전과 왕맹	.	彼苻堅 夷狄之酋庸中佼佼 王猛詐力之功不終一世 何足置齒牙間耶
당 태종과 위징	.	太宗 好名之君也 魏徵 好名之臣也 雖似相得 假治一世 而生不能止欲殺之心 死不能免躡碑之辱 此豈中心悅而誠信者耶
소열과 공명	.	使眞儒得遇昭烈 則庶幾少行其志矣 (중략) 吾以爲後世之君 惟昭烈庶幾能用眞儒

이상과 같이, 이이는 제1항목-제3항목을 통해 ‘삼대지치’라는 질서와 ‘군신상득’이라는 권력구조, 이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소결과 같은 제3항목의 제목으로 ‘군신상득’을 내세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특히 ‘군신상득’에 방점을 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이가 군도의 핵심으로 ‘현명한 신하에게 위임할 것’과 같은 군주의 ‘태도’나 ‘군주와 신하의 만남[君臣相得]’과 같은 정치적 조건을 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군주수신론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고려시대에 대표적 군주서로 기능하였던 『정관정요』는 고려 말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대학연의』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sup>57)</sup> 唐 太宗의 정치철학을 보여주는 『정관정요』는 군도의 핵심으로 諫言의 수용 등 신하에 대한 군주의 태도를 들었다.<sup>58)</sup> 그에 비해 송대 陳德秀가 주희의 뜻을 이어 편찬한 『대학연의』는 군주의 마음을 政事의 시작이자 근원으로 보고, 學을 통한 修己를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삼대의 군주로부터 배울 것은 그들의 학과 마음이었다.<sup>59)</sup>

태조가 野戰에서도 『대학연의』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일화의 강조에서 알 수 있듯이,<sup>60)</sup> 건국 직후부터 조선의 군주와 儒者들은 모두 『대학연의』를 중시하였다. 그런 만큼 국초부터 군주의 마음을 강조하는 언설들도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특히 중종 대에는 『大學衍義補』를 진강하려다 논란 끝에 무산되었듯이, 주희의 本末論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대두하여 제도에 대해 말단의 일이라 치부하며 더욱 철저하게 배제하였다.<sup>61)</sup> 이러한 경향은 선조 대 초반의

57) 김인호, 1998 「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大學衍義』」, 『역사와 현실』 29. 조선 전기 『대학연의』의 이해와 수용에 추이에 대해서는 지두환, 1993 「조선전기君子·小人논의: 『大學衍義』 왕안석론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9; 지두환, 1993 「조선 전기 『大學衍義』 이해 과정」, 『태동고전연구』 10; 정재훈, 1998 「조선전기 『대학』 이해와 聖學論」, 『진단학보』 86에 잘 정리되어 있다.

58) 이는 『정관정요』의 첫 장인 ‘君道’에서 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를 가르는 기준으로 널리 듣는가의 여부를 들고 있는 점, 그리고 천하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임명하여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드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59) 도학파가 추구하였던 군주의 모습에 대해서는 피터 K. 볼(김영민 옮김), 2010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16 - 224면 참조.

60) 『태조실록』 권1, 총서.

61) 明의 丘濬이 편찬한 『대학연의보』는 『대학연의』가 다루지 않은 ‘치국·평천하’의 항목만을

개혁세력에게 이어져,<sup>62)</sup> 李滉는 선조에게 올린 「戊辰六條疏」와 『聖學十圖』에서 는 오직 근본인 마음에만 힘쓸 것을 요청하였다.<sup>63)</sup> 이상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이는 이례적으로 ‘군신상득’을 군도의 핵심으로서 전면에 내세워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에 『동호문답』의 군도는 일견 『대학연의』보다 『정관정요』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sup>64)</sup>

이이가 군주의 修己와 正心이 지닌 중요성이나 『대학연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성학집요』에서는 군주의 ‘수기’를 전면에 배치하였으며, 전 반적인 구성도 『대학연의』의 그것을 비교적 충실히 따랐다. 다만, 이이는 군주의 正心·修己만으로 모든 정치적 과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조는 이 이의 개혁 요구에 대해 ‘덕행을 쌓은 연후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나는 덕행이 없어 삼대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였다.<sup>65)</sup> 개혁 세력 인사들 역시 ‘요순과 같은 덕이 있은 후에야 삼대의 사업을 할 수 있다’거나,<sup>66)</sup> ‘상의 학문이 고명된 후에 폐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sup>67)</sup> 그 의도는 서로 달랐지만, 양측은 군주의 정심·수기를 우선하고, 폐법 개혁과 같은 일은 뒤로 두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이이는 그런 선조와 동료들의 주장에 대해 모두 불만이었다. 그는 ‘군주의 정사는 사대부와 달라 하루라도 폐할 수 없

---

중점적으로 다룬 저술이다. 반대 측은 이 책을 ‘말단을 섭렵’하는 데 불과한 책이라 치부하였다. 이때의 논란에 대해서는 윤정, 2001 「朝鮮 中宗·英祖代『大學衍義補』進講의 의미」 『규장각』 21 참조.

- 62) 그 연결고리는 중종 대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언적이었다 [『중종실록』 권92, 중종 34년 10월 20일(갑신)]. 『대학연의보』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中庸九經衍義』의 집필로 이어졌다.
- 63) 『퇴계전서』 권6, 「무진육조소」; 권7, 「進聖學十圖箚 幷圖」.
- 64) 『정관정요』와 『동호문답』은 모두 ‘君道’의 핵심으로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군주가 신하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같았다. 즉, 『대학연의』와 같이 군주의 마음이 아니라, 일종의 군신관계를 질서 수립의 기초 이자 핵심으로 보았다. 형식적 측면에서도 두 책은 제일 처음에 ‘君道’ 항목을 내세우고, 問答의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점이 같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살펴보듯이, 양자가 추구하는 군신관계의 실상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 65)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9월.
- 66)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0월.
- 67)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11월: 『고봉집』 「논사록」 卷上, 63면-64면.

기애’, 군주는 수기와 치인을 병행해야 해야 한다고 보았다.<sup>68)</sup>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은 군주가 ‘군신상득’과 같은 바람직한 군신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 2) ‘군신상득’과 대신위임론

그렇다면, 이이가 ‘군신상득’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권력구조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이가 추구하였던 군신관계는 과연 『대학연의』보다 『정관정요』와 유사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신관계에 대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역사에서 군신관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 때는 漢 말기였다. 黨錮의 화 이후 많은 사대부들이 은거하자 군주들이 그들을 찾아 모셔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의 소열이 제갈공명에게 취했던 ‘三顧草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다. 이후 魏·唐代에 문벌이 형성되면서 군주에 대한 신하의 자립성은 더욱 촉진되었고, 그 결과 ‘쌍무적’ 군신관계 인식이 형성되었다.<sup>69)</sup> 『정관정요』에 등장하는, 아래와 같은 유명한 구절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군주와 신하가 만나는 것이 물고기와 물의 만남과 같아야 한다.<sup>70)</sup>

군주와 신하가 만나는 것은 옛날부터 어려운 일이다.<sup>71)</sup>

위의 것은 당 태종이 신하들에게 적극적인 간언을 요구하며 한 발언이다. 일찍이 한 소열이 자신을 물고기로, 제갈공명을 물로 비유한 고사를 인용하면서, 당 태종은 신하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아래의 것은 魏徵이 당 태종에게 신하에 대한 예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언급으로, 위의 경우와 반대로 신하가 군주에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이처럼 『정관

68)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2년 9월.

69) 溝口雄三 外 編, 2001 「君臣」 『中國思想文化事典』, 東京大學出版會.

70) 『정관정요』 求諫 “惟君臣相遇 有同魚水”

71) 『정관정요』 君臣鑒戒 “夫君臣相遇 自古爲難”

정요』에 등장하는 ‘君臣相遇’의 용법에서 어느 정도 상호적인 군신관계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정관정요』가 상정하는 군신관계에서 신하는 어디까지나 군주의 보조적 존재에 머물렀다.

송대 들어 군신관계에 대한 이념과 실제에서 또다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군주와 士가 함께 다스린다[同治天下, 共治天下]’는 원칙의 등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천하를 자신의 임무로 삼았던’ 송의 사대부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적 지위의 고양을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송대에는 ‘君臣相戒’, ‘君臣相與’, ‘君臣相孚’ 등 군신관계를 표현하는 관용 구절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군주를 얻어 도를 행한다[得君行道]”는 이념은 송대 사대부들의 정치적 지향을 잘 표현한 말이었다.<sup>72)</sup> 아래와 같은 『대학연의』의 구절도 이들이 추구했던 군신관계의 理想을 잘 보여준다.

탕이 이윤에 대해, 문왕과 무왕이 태공망에 대해, 성왕이 주공에 대해 스승으로서 대했다. 그래서 『서경』 ‘중훼지고’에서 말하길, “능히 스스로 스승을 얻는 자는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전하는 바에서도 스승 같은 신하[師臣], 친구 같은 신하[友臣], 종 같은 신하[僕臣]를 나누고 있다. 후세의 임금들 중에 신하를 벗 삼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다. 다만 한나라의 고제가 장자방을 대할 때나 광무제가 엄자를 대할 때나 소열이 공명을 대할 때 거의 그것에 가까웠다.<sup>73)</sup>

이에 따르면, 삼대의 경우처럼 군주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신하를 얻고, 그를 스승으로 대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삼대 이후 그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한 소열이 공명을 대한 경우가 그나마 군주가 신하를 벗으로 삼았던 경우에 가까웠다. 송의 사대부들은 결코 군신 간의 分義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학문을 매개로 하여 군신관계의 역전까지 생각하였다. 우리는 제1항목-제3항목에서 이이가 말한 내용의 원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군신상득’의 강조를 통해 의도하였던 군신관계의 모습은 『정관정요』의 그것보다

72) 위잉스(이원석 옮김), 2015b 『주희의 역사세계 하』, 글항아리, 651-728면.

73) 『대학연의』 권7, 朋友之教 “湯之於伊尹 文武之於太公望 成王之於周公 皆師之者也 古仲虺之誥曰 能自得師者王 而傳亦有師友臣僕臣之別焉 後世之君 其能友臣者已不多得 惟漢高帝之於子房光武之於嚴子陵昭烈之於孔明 庶幾近之”

송대 사대부들의 지향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송대 사대부들의 정치적 성장은 관료 조직 내부에서는宰相權의 강화로 연결되었다.<sup>74)</sup> 비록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었지만, ‘權臣’의 등장은 송대 재상권의 성장을 방증하는 사건이었다. 왕안석은 그러한 흐름의 선구에 있었는데, 그의 활약을 통해 재상권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군신관계에 대한 이념과 현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 재상과 같은 최고위급 신료는 더 이상 군주의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 군주와 더불어 정사를 논하는 존재, 군주권에 제약을 가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sup>75)</sup> 주희의 경우에도 “군주의 임무는 오직 재상을 임명할 뿐”이라거나,<sup>76)</sup> ‘재상권은 군주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군주에 대한 재상의 역할과 존재 의의를 분명히 하였다.<sup>77)</sup>

『동호문답』에서 이이가 제시한 ‘군신상득’은 형태상 ‘군신상우’와 ‘득군행도’를 결합한 모습을 띠고 있다. ‘相’이 군주와 신하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면, ‘得’은 그들의 만남이 ‘행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군신상득’은 ‘군신상우’ 아래의 상호적 군신관계와 ‘득군행도’의 결과인 삼대지치회복이라는 목표를 모두 담고 있다.<sup>78)</sup> 표면적으로는 군주와 신하 모두 ‘행도’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상 이이가 ‘군신상득’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군주가 ‘행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려고 하기보다 賢人에게 정사를 위임하라는 것 이었다.<sup>79)</sup> 그런 점에서 이이의 ‘군신상득’은 송대 아래의 재상·대신위임론을 재

74) 이른바 唐宋變革論의 ‘군주독재론’을 비판하며, 송대 재상권의 성장에 주목한 연구로는 王瑞來, 2001 『宋代の皇帝權力と士大夫政治』, 汲古書院 참조. 송대 군주권과 관료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와 논점은 宮崎聖明, 2010, 「第一章 宋代官僚制度研究の現況と課題」『宋代官僚制度研究』, 北海道大學出版會에 잘 정리되어 있다.

75) 위잉스(이원석 옮김), 2015a 『주희의 역사세계 上』, 글항아리, 334-360면.

76) 『주자대전』 권12, 己酉擬上封事(도현철, 2000 「정도전의 정치체제 구상과 재상정치론」『한국사학보』 9, 188면에서 재인용).

77) 위잉스, 2015a 앞의 책, 337-338면.

78) 실제 조선에서는 ‘군신상우’와 ‘군신상득’을 별다른 의미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79) 이는 다음과 같이 『성학집요』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성학집요』 為政 用賢 “臣按 孔子曰 為政在於得人 不用賢 而能致治者 未之有也 君臣相得 乃可有為 人君之職 惟以知賢善任為先務 故此章居先 而章內議論 特盡其詳”

차 강조한 것이었다.<sup>80)</sup>

잘 알려진 대로, 조선에서는 정도전이 ‘군신상우’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결국 ‘군주의 일은 한 사람의 재상을 간택하는 것뿐’이라며 재상위임론을 주장하였다.<sup>81)</sup> 그런데 정도전처럼 명시적으로 재상위임론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군주와 더불어 정사를 논하는 재상’이라는 의식은 송대의 경험을 모범으로 한 조선에서는 국초부터 보편적인 사유였다. 이는 강한 군주권을 추구한 태종 대에도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일상적으로 제출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82)</sup>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경국대전』에서 의정부에 ‘나라를 경영하는[經邦國]’, 실질적인 통치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경국대전』은 군주-재상-대간 3자 간의 균형을 이상적인 상황으로 상정하였지만, 연산군의 등장과 같이 군주 측에서, 그리고 중종 대 김안로와 명종 대 이량·윤원형 등 ‘권신’의 대두와 같이 재상 측에서 그 균형을 깨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동호문답』의 전반부에서 이이가 ‘군신상득’의 중요성을 통해 이야기하는 바는 정상적 군신관계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그것은 재상·대신에 대한 군주의 적극적인 책임 부여가 정치질서의 마련에 필수임을 역설한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통치가 지닌 미진함의 책임을 신하 측에 돌리기 위해, ‘자신이 하고자 해도 마땅한 신하가 없다’는 선조를 향한 발언이기도 하였다.<sup>83)</sup> 또한 ‘류속 인사로는 삼대지치를 회복할 수 없으며, 오직 聖君賢相이어야 한다’는 조광조의 주장을 이어,<sup>84)</sup> 위임의 행위만이 아니라 위임받은 대신의 도덕과 자질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것이었다.

80) 재상과 대신은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범주지만, 관료 조직의 최고위 인사를 지칭할 때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 경우 주로 대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절의 제목을 대신위임론이라 하였다.

81) 『삼봉집』 권7, 「朝鮮經國典上」治典 宰相年表. 정도전의 재상론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3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37-147면; 도현철, 앞의 논문, 184-190면 참조.

82) 가령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6월 16일(계유): 권2, 태종 1년 7월 16일(계묘): 권12, 태종 6년 7월 26일(계축).

83) 『고봉집』「논사록」 권상, 18면 하.

84) 『정암집』 권3, 「侍讀官時啓十二」.

#### 4. ‘祖宗之治’와 군신관계의 재정립

##### 1) ‘조종지치’와 군신관계

『동호문답』의 제4항목부터 제6항목까지는 이제 공간을 중국에서 ‘동방’으로 옮겨, 마찬가지로 군신관계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고대부터 당대까지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평가한다. 그리고 앞서 추출한 군신관계의 기준을 ‘동방’의 역사와 현실에 적용한다. 그런데, 중국사의 경우 군주 측에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면, 여기서는 신하 측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중국사에서 ‘모범적 군주’와 ‘문제적 군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동방’의 역사에서는 ‘진정한 신하[眞儒]’, ‘속된 신하[流俗]’, ‘권력자 신하[權臣]’를 주로 논의한다. 이이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에서는三代 이후 군주 측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왕도정치가 시행되지 않았음에 비해, ‘동방’에서는 신하 측의 결함 때문에 왕도정치가 행해지지 못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이이는 고대-고려의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세하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다룬 제4항목 ‘東方道學不行’의 분량은 『동호문답』의 총 10개 항목 가운데 압도적으로 적다. 다만, 그 원인을 ‘진유로 부재’로 환원한 점, 특히 정몽주에 대한 강한 부정은 이이만의 특징적 면모를 보여준다. 일찍이 중종 대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람은 정몽주의 문묘종사를 추진하면서, 그의 ‘학문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고, 忠孝大節은 당세를 움직였다’는 평가를 내렸다.<sup>85)</sup>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선조 대 초반의 개혁세력에게 계승되었고, 이들이 제시하는 조선도통론에서 정몽주는 “동방 이학의 시조”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sup>86)</sup> 그러나 이이는 정몽주가 “학문을 성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을 보면 어디까지나 “사직의 안정을 도모한” “충신”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정 일변도로 평가하였다. 즉, 학문과 실천, 모두의 측면에서 ‘진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85) 『중종실록』 권29, 12년 8월 7일(경술).

86) 『고봉집』 「논사록」 권상, 4면 하. 선조 대 초반의 문묘종사 운동에 대해서는 김영두, 2008 「선조초 문묘종사 논의와 도통론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31 참조.

제5항목 ‘我朝古道不復’에서 이이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祖宗之治에 대한 史論을 개진한다.<sup>87)</sup> 중종 대 이래 세종과 성종은 聖君으로 불리며 칭송되고 있었다.<sup>88)</sup> 이이 역시 이들의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것이었다. 조종조 중에서 이이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시기는 세종 대로서, 특히 儒學 숭상과 人才 양성, 그리고 禮樂 제정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이이는 그런 세종 대의 정치도 “단지 백성들의 살림과 인구가 넉넉해진” 정도에 머물렀다며, “세도 역시 商周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종 대도 어디까지나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넉넉한” 시기일 뿐이었다. 이러한 이이의 평가는 그가 조종조의 ‘풍요’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도덕질서를 추구함을 의미한다.<sup>89)</sup>

이이는 조종지치가 지닌 한계는 전적으로 신하 측의 잘못에서 비롯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조종지치의 부유함도 그나마 “堯舜과 같은” 세종과 “東方의 聖主” 성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 이이의 판단이었다. 특히, 신하를 대하는 세종의 태도는 더 없이 바람직하였으나, 당시 재상이던 黃喜와 許稠는 “류속 중에 조금 빼어난 정도”일 뿐이었다. 성종 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하여, “용렬비루하며 무식한 자들”이 대신이었다. 그런데 황희와 허조에 대한 이이의 비판은 그가 존경을 표했던 조광조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일찍이 조광조는 황희와 허조를 ‘삼대지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으로 평가한 바 있었다.<sup>90)</sup> 양자의 평가 차이는 경계의식의 정도 차이에서 비롯하였다. 이이가

87) 여기서 이이가 비교적 자세하게 검토하는 군주는 세종·성종·중종·인종·명종 등 모두 다섯 명이다. 태조·문종·연산군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정종·태종·단종·세조·예종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않는다. 정종·단종·예종의 경우 즉위 기간이 3년 이내로 극히 짧았기에 그렇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각각 18년과 14년을 재위 하며 조선 초 문물 정비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한 태종과 세조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그의 선택이 의식적이며, 특정한 기준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조종지치에 대한 이이의 인식은 보다 자세한 검토를 요하는데, 이는 추후 과제로 기약한다.

88) 『중종실록』 권2, 2년 1월 11일(을유).

89) 이이가 ‘조종지치’에서 문제 삼은 것은 흔히 오해하듯이 ‘낡고 오래된’ 조종의 ‘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조종의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것의 回復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래, 앞의 논문, 107-125면 참조.

90) 『정암집』 권3, 「參贊官時啓三」.

보건대, 조광조는 “간사한 자들이 덫을 놓고 틈을 노리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화를 당하였다. 그렇기에 이이는 조광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대신들을 평가하고 경계하였던 것이다.

이이가 보건대, ‘동방’의 역사에서 진정한 사[眞儒]의 출현은 “개연히 世道를 만회하고, 三王·五帝의 자취를 따르려는 뜻을 둔” 조광조가 처음이었다. 조광조의 출현으로 조선은 비로소 신하 측의 모범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조광조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이의 판단이었다.

오직 안타까운 사실은 조광조가 출사한 것이 너무 빨라 致用의 學이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을 함께 한 자들은 진실로 忠賢한 자들이 많았지만 이름나기 좋아하는 士도 섞여 나왔으며, 논의가 너무 날카로워 일을 하는 것이 점진적이지 않았으며, 格君을 근본을 삼지 않고 文具만을 우선하였다.<sup>91)</sup>

여기서 이이는 조광조의 문제점으로 학문의 부족, 문제적 동료의 존재, 점진적이지 않은 일 추진 방식, 格君이 아닌 文具의 우선 등 총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조광조의 ‘학문 부족’과 ‘성급함’ 등에 대한 지적은 이황이나 기대승 등 다른 이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였다.<sup>92)</sup> 다만, 그들과 달리 이이는 조광조의 실천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sup>93)</sup> 조정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자 했던 조광조의 모습은 제2항목 ‘신도’에서 제시한 이상적 신하의 像에 가장 근접하였다.

이이는 조선에서 도학은 조광조로부터 시작하였고,<sup>94)</sup> 오직 조광조와 이황만이 문묘종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sup>95)</sup> 그는 조광조와 이황을 비교하며, 조광조의 才調器局과 이황의 학문을 각각의 장점으로 들었다.<sup>96)</sup> 그렇다면, 이제 조광조의

91)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我朝不復古道 “獨惜夫光祖之出也太早 致用之學 尚未大成 共事之人 固多忠賢而好名之士 未免雜進 論議太銳 作事無漸 不以格君爲本 徒以文具爲先”

92) 조광조에 대한 이황의 평가는 『선조실록』 권2, 1년 9월 21일(정묘), 기대승의 평가는 『고봉집』 「논사록」 권상, 21면 상 참조.

93) 『율곡전서』 권4, 「代白參贊仁傑論時事疏」.

94) 『율곡전서』 권31, 「어록」 상.

95) 『율곡전서』 권29, 「경연일기」 선조 6년 8월.

96) 『율곡전서』 권28, 「경연일기」 선조 13년 12월.

후예로서 선조 대 초반의 개혁세력이 해야 할 일은 조광조의 실천력에 이황의 학문을 더하여, 삼대지치의 회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었다.

〈표 6〉 조선의 祖宗之治와 군신관계에 대한 이이의 평가

	군주에 대한 평가	신하에 대한 평가	치세에 대한 평가
세종	世宗之聖前朝所無有也 (중략) 養育人材 制禮作樂 垂裕後昆	夫上有堯舜之君 下無稷契之臣 如許稠黃喜 皆流俗中梢秀者耳 無一人明先王之道 以輔聖主	吾東之治 於斯爲盛 克至今日 遺澤未泯 我國萬祀之祚 肇基於世宗矣 (중략) 斯民僅止於富庶 世道終愧於商周
성종	英睿之質 卓冠千古 真我東之聖主	當國大臣 庸鄙無識 經幄論思之際 至發性情無心之說 (중략) 大小臣僚 不以國事爲念 蕩然恣意於遊戲 樂放肆而憚拘檢 惡特立而喜雷同	昇平日久 國富民給 (중략) 雖逢有爲之主 不見治化之隆 流風遺俗 至今爲弊
중종	勵精圖治 側席求賢	有若趙光祖 以性理之學 被眷遇之重 愛君如父 忘身徇國 (중략) 不知姦邪切齒 設機伺隙 神武之門夜開 而?賢皆落于一網矣	自是之後 士氣摧傷 國脈垂絕 志士之嘆 於斯轉甚 然而人心本善 公論難減 (중략) 中宗末年 學問之士 多聚于朝
인종	不出號令 而躬行之化 已被於邦域矣	姦兇乘勢 斬刈良善 設叛逆之名 以爲陷罪 士類之稍有知識者 無能得脫	乙巳之禍 足以亡國 而實曆綿遠者 良由祖宗積德之餘慶也
명종	英達夙成 少無失德	李芑尹元衡之徒 堕蔽聰明 賊賢誤國	忠臣鉗口 道路以目者垂二十年 (중략) 元衡得罪 士林興起 廉見春陽復回於蔑貞之後

## 2) 삼대지치 회복을 위한 대신위임론

이이는 제5항목 ‘我朝古道不復’에서 당시 조선이 처한 문제적 상황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지금 국가의 형세는 마치 기절을 했던 사람이 겨우 소생을 하여 아직 모든 맥이 안정되지 않고 원기도 회복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약을 써야 살아날 가망이 있을 텐데, 혹자는 약을 쓰지 말고 가만히 앓아서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자고 하고, 혹자는 좋은 약을 써야겠는데 무슨 약을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들러서서 보고만 있을 뿐 한 가지 계책도 써보지 않고 있으니 큰 병을 치르고 난 뒤에 風邪가 들기 쉬워 장차 구제할 수 없는 위태로운 證候가 생겨 기어코 죽고

야 말 것이다. 국가의 형세가 그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대신들은[肉食之臣] 정신을 가다듬고 구해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간특한 자를 물리치고 현명한 자를 진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오직 그 舊弊를 없애고 새로운 혜택을 펴서 민생을 구하기 위한 것뿐이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남곤·김안로·이기·윤원형 등의 나라를 그르친 遺弊가 다 셧기지 못하였고, 백성을 괴롭히던 가혹한 법들이 아직 개혁되지 못하였는데, 바야흐로 안일함만 찾고 일을 싫어하여 무엇 하나 똑바로 바로잡은 것이 없어 마치 曹參이 蕭何의 뒤를 교대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는 온 나라를 망각 속에다 내던져 둔 격이다.<sup>97)</sup>

이이는 당시의 조선을 기절했다가 겨우 깨어난 사람, 서둘러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태에 비유하였다. 이를 사실적 표현으로 바꾸면, 권신의 집권을 거치며 백성들의 삶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졌고, 따라서 이를 구제하는 개혁 조치를 서둘러 취하지 않으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인식은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자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이는 당시의 대신들에게 가장 큰 책임을 돌린다. 개혁을 통해 국가를 구하는 데 앞장서야 할 그들이 오히려 기존 정책의 고수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었다. 일반적으로 漢 高祖의 功臣인 蕭何와 曹參의 사례는 기존 정책을 잘 계승하여 훌륭한 정치를 이룬 모범으로서, 제도를 바꾸어 화를 부른 왕안석의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로 거론된다.<sup>98)</sup> 그러나, 여기서 이이는 오히려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들을 인용하였다. 당시 조선의 과제는 기존 정책의 고수와 계승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이는 ‘구폐를 없애고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간특한 자를 물리치고 현명한 자를 진출시키는”, 즉 조정의 세력 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97)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我朝古道不復 “當今國家之勢 譬如氣絕之人 僅得蘇醒 百脈未定 元氣未復 汲汲投藥 庶見生道 而或以爲不用藥餌 坐待自瘳 或以爲當投良藥 而不知某藥之可用 拱手環視 不施一計 則大病之餘 風邪易中 將必有不可救之危證 以至於必死而後已也 國家之勢 其危如此 肉食之臣 其可不惕然思有以救之乎 所貴乎去姦而進賢者 只爲除其舊弊 布其新惠 以救民生耳 今也不然 南衰金安老李芑尹元衡誤國之遺弊 未盡洗滌 虧民之苛法 未見改革 而方且偷安厭事 無所建明 若曹參之代蕭何 則是舉一國而付之相忘之域矣”

98) 『태종실록』 권5, 3년 4월 4일(경술): 『성종실록』 권236, 21년 1월 24일(정축): 『연산군일기』 권21, 3년 2월 19일(신묘); 『중종실록』 권2, 2년 4월 13일(병술).

여기서 그가 민생을 구제할 개혁의 주체로 상정한 ‘현명한 자’의 정체는 다음 항목인 제6항목 ‘당금지시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손님이 물었다. “三代之治를 과연 오늘날 회복할 수 있는가?”

주인이 말하였다. “회복할 수 있다.”

손님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말이 너무 지나친다. 王道가 행해지지 않은 것이 이미 漢나라 때부터 그러한데 하물며 지금의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리 東方은 箕子 이후 다시는 善政이 없었고 지금의 풍속을 생각하면 필시 前朝보다 못하다. 만약 少康을 구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단지 處士의 큰소리가 될 뿐이다.”

주인이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전략) 王道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단지 군주와 재상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 어찌 시대가 점점 내려갈수록 회복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그 군주와 그 재상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때이다.”<sup>99)</sup>

한마디로 그들은 삼대지치의 회복에 대한 믿음과 실천 의지를 가진 이들로서, 이는 이이가 자신의 정치적 동료라고 생각한 개혁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였다. 이이는 ‘지금, 조선에서, 삼대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지만, 손님은 곧장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한·당대의 少康조차 이룩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삼대지치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손님의 의문은 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당시에 상당히 일반적이었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손님의 의문 제기가 말해주듯이, 한·당을 현실적 목표로 간주하려는 의식은 선조 대 초반에도 여전히 강하였다. 이이가 한 문제에 대해 ‘自棄했다’고 평가하자, 선조가 지나친 평가라며 반발한 일도 그 한 사례로 볼 수 있다.<sup>100)</sup>

이이가 조선에서 삼대지치의 회복을 자신하는 이유는 그것이 ‘때가 아니라 사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삼대지치를 면 옛날 古代의 질서라는 이유로 도와시 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라는 메시지였다. 구체적으로는, ‘군주

99)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 論當今之時勢 “客曰 三代之治 果可復於今日乎 主人曰 可復矣 客呀然笑曰 何言之過也 王道之不行 自漢已然 犹今之人 不及漢遠甚乎 東方則箕子之後 更無善政 度今之俗 必不及前朝矣 若求少康 則庶可矣 欲行己道 則徒爲處士之大言而已 主人愀然曰 (중략) 夫王道之不行者 只是君相非人耳 豈以時代漸下 欲復而未能歟 有其君有其相 則斯爲可復之時矣”

100) 『선조실록』 권3, 2년 9월 25일(을미).

와 재상'의 의지와 실천이었다. 앞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군신상득'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나 삼대지치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비로소 제1항목-제3항목에서 이이가 '군신상득'을 강조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선조에게 '진유'를 대신·재상으로 등용하여,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이이가 지금, 조선에서 삼대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호조건으로 '권신의 부재'를 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권신이란 말 그대로 군주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신하로,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고, 군주를 협박"까지 하는 존재였다. 부정적 의미를 더욱 강하게 담아 권간(權奸, 權姦)이라 칭하는 경우도 많았다.

옛부터 임금이 비록 治道에 뜻을 두었다 하더라도 만일 權臣이 있어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고 임금을 협박하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는 私兵을 없앤 뒤로부터 이른 바 권신이란 자들이 모두 은총에 의지하여 위엄을 부릴 뿐 감히 임금을 업신여기거나 기강을 범하지 못합니다. 비록 南袞 같은 羣慝함과 金安老같은 邪險함과 이기 같은 虐 악함과 정순봉 같은 陰譖함과 尹元衡 같은 奸毒함과 이량 같은 悖妄함으로도 부르면 오고 내쫓으면 물러가서 오직 임금의 명령대로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간신들이 모두 조정에 있지 않으니 주상께서 만약 해보려고만 하신다면 누가 감히 祸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임금을 현혹시키겠습니까.<sup>101)</sup>

그 실상과는 별개로, 권신은 언제나 문제적 신하의 대명사였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고려 말 우왕 이후를 '권신'이 통치시기로 규정했으며, 세조는 자신이 '계유 정난'을 일으킨 이유가 '권신'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종 대 조광조가 사약을 받게 된 것도 '권신'이란 지목을 받은 후였고, 그 기묘사화를 주동한 김안로도 결국 '권신'이라는 명목으로 처단되었다. 명종 대의 이기와 윤원형 역시 '권신'이라는 지목을 받았다. 이처럼 권신은 단지 군주에게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신하들에게 해악이 되는 존재로서, 정상적인 군신관계를 방해하

101) 『율곡전서』 권15, 「동호문답」當今之時勢 “自古人君 雖或有志於治道 而若有權臣擅制 威脅君上 則雖欲有爲 末由也已 今我國家 自廢私兵之後 所謂權臣者 莫非依寵而作威 不敢陵上而干紀 雖以南袞之羣慝 金安老之邪險 李芑之兇惡 鄭順朋之陰譖 尹元衡之檢毒 李樸之悖妄 呼來斥去 惟上所命 知今羣姦 皆不在朝 自上若欲有爲 則孰敢包藏禍心 燊惑聖聽耶”

는 존재의 대명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이는 태종 대 私兵이 혁파된 아래 이미 권신이 발호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은 원천적으로 제거되었다며,<sup>102)</sup> 만약 향후 권신이 또 생겨나도 군주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진압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제 위의 인용문에서 이이가 사병 폐지를 언급하며, 군주의 우세를 언급한 의도가 드러났다. 이이는 선조에게 권신의 발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에게 적극적으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이는 당대 조선이 戀臣들의 문제적 정치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시급하였다. 그러나 국왕 선조와 대신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였다. 이에 이이는 그들을 ‘류속’으로 치부하였다. 그리고 ‘진유’이자 자신의 정치적 동료인 개혁세력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진출하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동호문답』의 전반부에서 이이가 개진하는 군신론은 이와 같은 정국 인식의 원인이자 결과였다. 즉, 그러한 이론을 통해 현실을 보았기에 현실을 위와 같이 파악한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결과 그러한 이론을 제출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이는 『동호문답』의 전반부에서 중국 역사 속 군신관계를 평가하면서, ‘삼대지치’라는 질서와 ‘군신상득’이라는 정치적 조건,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군신상득’에 역점을 두어, 삼대지치에 언제, 어디서든 구현할 수 있다는 보편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삼대지치 회복에 대한 믿음과 실천 의지를 가졌다라는 점에서 이이는 선조 대 초반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군주의 마음이 아니라 ‘군신상득’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든 점에서 그들과 달랐다. 즉, 목표는 공유하되, 그 방법에 대

102) 조선의 사병 혁파에 대해서는 민현구, 1984 「조선초기의 사병」 『東洋學』 14 참조.

해서는 생각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이이가 말하는 ‘군신상득’이란 개혁세력이 대신과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 군주의 위임을 받아 정치를 행하는, 가히 개혁세력의 ‘집권’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이가 『동호문답』의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를 聽者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주인 선조에 대해서이다. 즉위 이래 선조는 삼대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개혁세력의 요구에 대해 누차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에 대해 이이는 그렇다면, ‘대신에게 위임하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선조는 대신에 적합한 신하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둘째, 이이의 정치적 동료인 개혁세력 인사에 대해서이다. ‘류속’ 대신에 의해 정치적 화를 당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이이는 군주의 正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혁세력에게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정리하면, 이이는 『동호문답』 전반부를 통해 선조에게는 ‘진유’를 대신에 등용하여 정치를 위임할 것을, 동료인 개혁세력에게는 조정에 진출하여 대신과 같이 권한 있는 자리에 포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제어 : 東湖問答, 君臣論, 栗谷 李珥, 三代之治, 君臣相得, 流俗, 眞儒, 權臣, 趙光祖

투고일(2016. 8. 24), 심사시작일(2016. 8. 26), 심사완료일(2016. 9. 7)

### 〈Abstract〉

## Yi Yi's *Dongho mundap* and Theory of Monarch and Subjects

Kim, Kyung-rae \*

The *Dongho mundap* (東湖問答, Catechism at Eastern Lake) presented by Yi Yi in September of the 2nd year of King Seonjo's reign is a work that served as a blueprint for his reforms. Previous studies of the *Dongho mundap* have been limited by their overarching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s and annotations found throughout the entire work. Howev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re assertions of the work can be found in the first half of *Dongho mundap*. This study also departs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the interpretation of Yi Yi's assertions is based on the prevailing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In the first half of his work, Yi Yi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narch and subjects throughout the history of China and Joseon, and sought to express the political 'goal' that Joseon should pursue and the essential 'method' which should be used to achieve the goals. First, the 'goal' was the 'recovery of the governance of three generations (三代之治)' to counter what Yi saw as being made necessary by the meritorious subjects' lack of the sincere belief and practical will that he and the members of the reform group possessed. This was a strong criticism of the meritorious subjects blocking the reforms of the time. Next, the 'method' involved a power structure based on 'mutual contentment between monarch and subjects (君臣相得)'. Yi Yi regarded that the reform group should grasp the power to recover the governance of three generations. This already contained the cause of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reform group, which were exposed with the reform group was split into the Eastern and Western parties in the future. Both parties agreed on the 'goal' while exhibiting different opinions on the 'method'.

**Key Words :** *Dongho mundap*(東湖問答, Catechism at Eastern Lake), theory of monarch and subjects(君臣論), Yulgok Yi Yi(栗谷 李珥), governance of three generations(三代之治), mutual contentment between monarch and subjects(君臣相得), 流俗(conventionalists), 真儒(true literati), subject who exercises unjust power(權臣), Jo Gwang-jo(趙光祖)

---

\*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